

중국 산둥성 채소 생산 및 수출실태 (2009. 8)*

신용광 · 윤종열

1. 중국의 채소생산 실태

주요 채소류 생산지역

중국의 채소 재배 면적은 전체 농경지면적의 11%에 해당하는 17,720천ha이며 이 가운데 산둥성이 1,848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채소류 생산지역의 농산물 생산구조는 <표 1>과 같다. 중국 전체 농경지면적은 155,490천ha이며 이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55,029천ha가 관개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채소 재배면적은 전체 농경지면적의 11%에 해당하는 17,720천ha이며 이 가운데 산둥성이 1,848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내몽골 자치구와 운남성은 현재 채소 재배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상 조건이 우수하여 채소생산 인프라가 정비된다면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품목별, 산지별 출하시기

중국에서 채소 수출지역의 주요 출하시기는 <그림 1>과 같다. 중국 채소의 최대 수출지역인 산둥성은 주요 채소 출하시기가 여름철이지만 기타 지역은 기후여건이 달라 4계절 모두 채소가 생산되고 있다.

* 본 내용은 중국 산둥성 현지조사(2009.5.12.~14.) 보고서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용광 부연구위원과 윤종열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ykshin22@krei.re.kr, 02-3299-4333)

표 1 중국의 지역별 농산물 생산 구조 (2005년)

단위: 백만 톤

구분	농경지면적 (천ha) A	관개면적 (천ha) B	비율 B/A	채소면적 (천ha) C	비율 C/A	1인당 경작면적(ha)
전체	155,490	55,029	35%	17,720	11%	0.40
산동성	10,736	4,837	45%	1,848	17%	0.34
내몽고	6,216	2,817	45%	222	4%	1.39
하북성	8,786	4,579	52%	1,105	13%	0.39
강소성	7,641	3,835	50%	1,194	16%	0.45
감숙성	3,726	1,063	29%	307	8%	0.45
상해시	404	206	51%	131	32%	0.40
절강성	2,838	1,431	50%	667	23%	0.20
복건성	2,481	953	38%	632	25%	0.16
윤남성	6,054	1,51	25%	492	8%	0.25

자료: 중국통계연감

그림 1 주요 채소의 품목별 · 지역별 출하시기

품목	출하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양배추	산동성												
	내몽고												
	하북성												
	상해시 · 절강성												
	광둥성 · 복건성												
대파	산동성												
	상해												
	복건성												
양파	산동성												
	감숙성												
	복건성												
당근	산동성												
	내몽고 · 하북성 · 산서성												
	복건성 · 광둥성												
마늘	산동성												
	산동성												
무	내몽고 · 요녕성 · 하북성												
	복건성												
	복건성												

2. 산동성의 주요 채소류 생산 실태

건고추

금년 중국 고추 재배 면적은 지속된 가격 약세로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하였으며 특히, 신강, 감숙, 내몽고, 길림 지역의 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금년 중국 고추 재배 면적은 지속된 가격 약세로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하였으며 특히, 신강, 감숙, 내몽고, 길림 지역의 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고추 가격 약세의 영향 뿐만 아니라 작년 곡물 파동의 영향에 따른 중국 정부의 식량작물 생산 장려 정책으로 옥수수 등 식량작물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동지역 건고추 수확기는 한국보다 2달 정도 느린 11~12월이다. 이는 중국 건고추 수확 특성상 홍고추가 성숙된 후 노지에서 고추 성목을 뿌리 채 뽑아 2달 정도 노지에서 건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달리 수확기에 태풍 피해 등 기후적인 영향이 적어 노지에서 일괄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동지역은 기후여건이 좋아 1년에 2번 수확하고, 동북, 내몽골, 신장 지역은 산동지역에 비해 기온이 낮아 1년에 1회 수확한다. 최근 산동지역은 청도, 위해, 연태 등 항구 중심으로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산지가 점차 내륙인 내몽고, 신강, 동북 3성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마늘

중국 마늘의 최대 주산지는 창산, 금향 지역이며, 금년 중국 마늘 재배 면적은 작년 가격 약세로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하였다.

금년 중국 마늘 재배 면적은 작년 가격 약세로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하였다. 주요 대체 작목은 밀로써 중국 정부에서 밀 재배 시 소득보전 직접 지불 혜택을 주고 있어 많은 농가들이 마늘 대신 밀 재배를 늘리고 있다. 마늘 후작으로는 배추, 옥수수, 대파, 부추 등이 재배되고 있다.

중국 마늘의 최대 주산지는 창산, 금향 지역이다. 창산 지역에서는 육쪽마늘, 금향 지역에서는 스페인산 마늘이 재배되고 있으며, 창산 지역의 금년 마늘 재배 면적은 1만 7천 ha로 작년보다 15% 감소하였고, 금향 지역의 마늘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20% 감소한 5만 3,600ha로 추정된다. 창산 지역의 10a당 마늘 생산량은 1,500kg이며 금향 지역의 10a당 마늘 생산량은 2,200kg이다.

금년 마늘 산지 가격은 창산 지역이 500g당 2.5위안이며 금향 지역이 500g당 65전으로 작년보다 각각 20%, 16%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마늘 재배 단지



그림 3 양파 재배 단지



양파

금년 중국 양파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20% 내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속된 양파 가격 약세로 양파 재배 농가의 소득 불안을 초래하였고, 양파의 저장, 가공업자들이 영업에도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산지인 산둥 동남 지역, 감숙, 내몽고 지역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양파 단수는 구 비대기 기쁨으로 작년보다 크게 감소하여 생산량 감소폭은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5월 하순에는 조생종 수확이 마무리되고 중생종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기상 여건에 따라 5~7일 가량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양파 작황 부진으로 상품성이 저하되어 수출물량 확보에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둥성 평도지역의 양파 재배 면적은 마늘 재배 면적보다 규모가 작으며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농가당 경지면적은 2~3무 내외이다. 5월 현재 조생종 양파가 출하되기 시작하였고, 산지 가격은 재배 면적 감소로 kg당 1.4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금년 중국 양파 재배 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속된 양파 가격 약세로 양파 재배 농가의 소득 불안을 초래하였고, 양파의 저장, 가공업자들이 영업에도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3. 주요 채소류 수출 실태

양념채소류 수출 실태

청도다해식품유한공사의 양념채소류 수출량은 건고추와 마늘이 각각 3,000톤, 양파가 4,000톤이다.

이 중 건고추는 대부분 유통공사의 MMA 입찰 물량이고 민간 수출은 소량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유통공사와의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민간 업체보다 거래의 신뢰도가 높아 입찰 품질 기준을 유지할 경우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최근 양념채소류 거래 방식은 과거의 선물량 후대금에서 선대금 후물량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고추 수출형태는 건고추, 냉동고추, 고춧가루, 고추장, 양념다데기 등이다. 냉동고추는 중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전량 수출되고 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냉동고추는 마진이 적지만 물량이 많아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냉동고추는 수확 시기에 홍고추를 일괄 구입하여 제조하고 냉동저장한 후 방출한다. 금탑은 동북 3성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데 수확기 때 산지를 순회하여 직접 물량을 확보한다. 익도홍은 취급 비율이 낮아 인근의 덕주 지역에서 물량을 확보한다. 2009년 5월 현재 익도홍 산지 가격은 톤당 5,500~6,000위안, 금탑은 6,800위안~7,000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건고추 CIF 가격(익도홍 기준)은 톤당 2,100달러이며, 꼭지를 제거한 건고추는 톤당 1,500달러이다.

한편, 2009년 5월 상순 마늘 수출 가격(FOB 청도 가격)은 통마늘이 톤당 250달러, 창산마늘이 톤당 270달러이다. 한국으로 수출된 마늘은 대부분 음식점, 요식업체로 판매된다. (주)황보마을에서는 국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소포장한 다진마늘 납품을 계획하고 있다.

명승국제무역의 작년 신선양파 수출 단가(CIF 기준)는 톤당 170달러로 청도 관내 경쟁업체보다 5% 저렴한 가격에 수출하였다. 이 물량은 저장 비용이 톤당 10달러 저렴한 양파로 이는 단기적으로 수확 후 즉시 수출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톤당 유통비용(170달러 기준)은 원료구입비 105달러, 포장비 5달러, 내륙운송비 20달러, 해상운임비 30달러, 수출자 이윤 10달러이다.

김치 수출 실태

청도삼구식품유한회사는 2006년에 설립하였고 김치 수출이 주력 사업이다. 최근에는 건강식품인 “나또(なっとう)” 생산 체계를 갖추어 일본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공장의 전체 부지는 8,500평이며, 이 중 김치 가공 공장 4,000평, 고춧가루 가공 공장 1,500평, 나또 생산 공장 1,000평과 나머지 부지는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4 삼구일품 김치



그림 5 식품 및 상품 기준 인증서



원재료 특히, 배추는 산동, 내몽고 지역에 4개의 재배 단지를 직접 운영하여 조달하고 있다. 배추는 현지 농가와의 계약 재배로 생산하고 회사에서 규격화된 종자, 비료, 농약 등을 지정·공급한다. 계약 단가는 배추 수확기 산지 시세를 고려하여 책정하는데 계약 재배의 목적이 원재료의 안정적인 조달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 단가는 산지 가격보다 5% 높게 책정하고 있다.

연도별 김치 생산량은 창립연도인 2006년에는 5,000톤, 2007년은 1만 톤, 2008년은 7,000톤이며 현재 공장 규모를 고려할 경우 연간 최대 김치 생산량은 약 1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생산공정은 배추납품→절단→세척→절임→탈염 및 세척→탈수→양념→포장→숙성→출고의 단계를 거치며 김치 1일 생산량은 25~28톤이다. 김치의 재료별 수율은 배추 75%, 양념류 25%이다.

전체 김치 생산량 중 95% 이상이 수출용이고, 내수용은 5%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수출량은 2006년 4,000톤, 2007년 9,800톤, 2008년 6,650톤이며 주요 수출국은 한국과 일본으로 한국 수출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배추 구매에서 가공, 수출까지는 대략 5일 정도가 소요되며 거래 중인 한국회사는 (주)초록식품이다. 한국에서는 ‘초록옥’ 김치로 유통되며 대부분 대형요식업체, 식자재 업체로 납품되고 있다.

국가별 수출 단가는 한국으로의 수출이 톤당 달러500, 일본으로의 수출이 톤당 달러700로 일본 수출용 김치 단가가 한국 수출용 김치 단가보다 40%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김치는 수출 적합 기준이 까다로워 이러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생산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치 가공공장 위생 시설은 A등급으로 관리가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중국인들도 김치 공장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져 오히려 한국인 소유의 중국내 김치 공장보다 우수한 경우도 많다.

최근 한국으로의 김치수출량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 감소 원인은 첫째, 2008년 하반기 금융 위기에 따른 고환율 및 경기 불황 둘째,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의 원산지 표시제 강화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김치 납품은 외상거래가 관행적으로 행해지는데 최근 경기 불황으로 자금 회전에 차질이 생겨 영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김치 수출 둔화는 경기 불황 여파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연도별	수출량은
2006년	4,000톤,
2007년	9,800톤,
2008년	6,650톤이
며 주요 수출국은	
한국과	일본으로
한국 수출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보따리상(파이공)에 의한 농산물 반출 실태

보따리상 일명 ‘파이공’은 한국의 공산품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판매한 금액으로 농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전문 파이공은 청도, 연태, 위해 등 항구의 여객터미널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상점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며 주요 품목은 건고추, 참기름, 참깨, 검정콩, 흑미, 찹쌀

전문 타이공은 청도, 연태, 위해 등 항구의 여객터미널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상점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며 주요 품목은 건고추, 참기름, 참깨, 검정콩, 흑미, 찹쌀 등이다.

등이다. 농산물은 전문 타이공 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객들도 구매할 수 있으며 전문 타이공의 1인당 연간 구매 횟수는 100회 정도로 추정된다.

그림 6 보따리상 거래장면(항구)



그림 7 압축 건고추



표 2 청도 농산품 가격

단위: 위안/kg

건고추	참깨	참기름	녹두	땅콩	검정콩	잣
18-20	16-20	24-28	8	10	9	140

청도 터미널에서 휴대 반입되는 농산물은 건고추, 참깨, 땅콩 등이며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농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중국정부의 반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청도 터미널에서 휴대 반입되는 농산물은 건고추, 참깨, 땅콩 등이며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농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중국정부의 반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2009년 3월 9일부터 참기름 및 잡곡류 휴대반출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다.

중국의 농식품 안전조치에 따른 반출 통제 강화 및 한국의 물량한도 단속강화로 월간 농산물 반입량은 900톤 정도로 추정된다. 반입품목은 시세차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품목 위주로 반입되는데 최근에는 고추, 참깨, 땅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인당 휴대반입물량은 50kg이며 품목별 한도량은 5kg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따리상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90년대 후반('99년: 고추 5,500톤, 참깨 7,200톤, 갯마늘 900톤)에는 수천 톤 단위로 반입되었다.

표 3 품목별 월간 반입량 추정

구분	고 추	참 깨	땅 콩	기 타	계
물량(톤)	130(250)	260	260	130	780(900)
비율(%)	17	33	33	17	100

주: ()는 건고추 수율(52%)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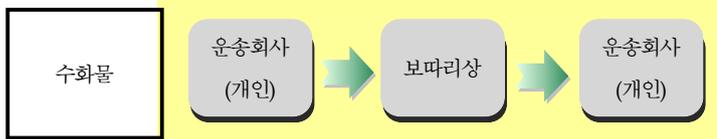
보따리상은 고추, 참깨, 땅콩, 술, 잡화 등을 운반하는 일반 보따리 무역상과 회사 단위나 개인의 급송화물 등을 운반하는 수화물 운반책 보따리상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보따리상 수집책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후자는 주로 양국에 있는 운송전문 회사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수집상의 주요 유통경로는 5단계이다. 이들은 일부 소매상으로 판매하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도매상을 통해 판매된다.

보따리상은 고추, 참깨, 땅콩, 술, 잡화 등을 운반하는 일반 보따리 무역상과 회사단위나 개인의 급송화물 등을 운반하는 수화물 운반책 보따리상으로 구별된다.

그림 8. 보따리상 휴대농산물 유통경로



그림 9. 보따리상 수화물 유통경로



일반적으로 파이공의 입국 편도 1회당 순수익은 3만 원 정도로 파악되며 출국시 반출하는 물품의 마진 및 50kg 한도 초과물량 등을 감안할 시 왕복 수익은 6만 원 ~7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4 보따리상 순수익 내역

구 분 (1항차/편도기준)			산출기준(50kg기준)
물품 구입가격(a)	50kg	144,160원/고추,참깨, 땅콩	(a) 품목별 구매가격('09.3.13기준) 압착고추(5kg): 18,500원×2개= 황색참깨(5kg): 18,550원×4개= 땅콩(5kg): 8,240원×4개= 팥(5kg): 10,300원×1개= 간늬두(5kg): 9,270원×1개=
도착 비자비용(b)	1인	32,980원(160위안)	
선박(페리)비용(c)	1인	50,000원(이코노미)/ 선사 상인회 할인적용	
터미널 이용료(e)	1인	3,200원	
계(f)		230,340원	
한국 판매가격(g)	50kg	261,000원	(g) 주변입품목 판매가격(50kg기준) 압착고추(5kg): 37,500원×2개= 황색참깨(5kg): 29,000원×4개= 땅콩(5kg): 17,500원×4개=
순수익	(g-f)	30,660원	

4. 국내 채소시장에 대한 시사점

산동지역은 한국과 기후조건이 비슷하여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채소류의 재배 시기와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 산동지역은 넓은 평야지대가 분포하고 있어 농산물의 대규모 재배에 유리하다. 대한민국 주요 수출 품목인 건고추, 마늘, 양파는 대규모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품목의 생산비는 국내산의 15% 이상 낮은 수준이다.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김치,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채소류의 대한민국 수출이 부진하였다.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김치,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채소류의 대한민국 수출이 부진하였다. 더욱이 금년 중국의 주요 양념채소류 생산량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한민국 수출여력이 현재보다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치는 한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계약 업체의 대금 결제 지연과 소비둔화로 중국의 김치공장 가동률이 작년에 비해 50% 떨어진 상황으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의 수입 부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식량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식량안보차원에서 곡물 재배에 대한 소득 보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옥수수, 밀 등 곡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무당 260위안을 직접 보조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곡물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반대로 양념채소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중국 채소류의 대한민국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참고자료

- 일본농축산농업진흥기구. 2009. “中國における品目別野菜産地の概況と生産・出荷動向”. 「野菜情報」
- 중국통계연감.